"찜질방 때밀이 최고예요"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제2567호 www.metroseoul.co.kr

'포트X' 월드컵 최대변수

美 당장 다음달부터 '돈줄' 죄나

연준, 경제지표 따라 '테이퍼링' 조기 단행 가능성…국내 증권·카드사 직격탄 우려

코스피 1980선 급락 4일 코스피가 외국인이 6월 이후 최대 규모로 순매도하며 200[illegible]선이 무너져 1980대까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2.56포인트(1.12%) 떨어진 1986.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Issue&View 양적완화 축소공포 현실로?

/기사 지기자 @metroseoul.co.kr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안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축소 우려 소식에 일제히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1990선이 맥없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2% 내린 1986.8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는 탓이다. 세계 주요 증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간밤 뉴욕 증시를 비롯해 독일 증시 1.90%, 프랑스 증시 2.69% 등 모두 출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축소로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져 당분간 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장세가 길게 이어지려면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 내년 중반 이후로 늦춰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수개월 내에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증시에도 과도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가 다음달부터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분간 국채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신흥국 주식시장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 속에 미 연준은 수개월 이내에 양적완화 축소를 실시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고용 상황이 연준 목표치에 부합하면 언제라도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내년 3월에 시작되고, 첫 자산 매입 축소 규모는 월 1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출구전략 예상 경로를 ▲자산 매입 축소와 중단 ▲금리 인상 ▲보유 자산 매각 등의 순서로 산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ECB 등도 대응책 마련 부심

전 세계 중앙은행도 '자국 통화 가치 낮추기'에 돌입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낮추기 쉬해 나섰다. 중국 역시 환율 변동폭을 늘리고 자본 흐름 자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적완화 축소 전망이 나올 때마다 외환시장과 증시가 요동친 인도네시아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궁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통화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인도 루피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인 루피아화의 환율 안정을 위해 이달 정례의사회에서 7.5%인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비은행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증권·카드사 등 국내 금융 부문의 수익 기반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 인상 시 증권사·카드사의 수익성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속도 통행료 종착지서 한번만 낸다

2016년부터 민자도로 갈아타도 마지막에 일괄수납

앞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여러 차례 정차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법인과 '통행료납부 원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운영 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은 중간에 정지해 통행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새로 개발되는 통행료납부 관리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 연계도로에서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공주 이동 차량이 천안~논산 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지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시스템 적용시 입구에서 한 번, 출구에서 한 번 총 2회 정차해 통행료를 1회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과 2016~2017년 개통 예정으로 건설 중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9개 노선 이용 국민이 통행 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원에 이른다"며 "향후 적용 노선 확대에 따라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장성택 실각설 심각한 국방·통일 김관진(왼쪽) 국방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노력하면 신분상승 가능하다" 28%뿐

행복 못 주는 행복주택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한 서승환(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구주 46.7% "나는 하층민"… 10명 중 6명은 "직장 잃거나 바꿔야 할까봐 불안"

우리나라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60%가량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 60%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상층' 1.9%, '중간층' 51.4%, '하층' 46.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4%포인트 감소한 반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조사 이후 최대치다.

또 일생 동안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8.2%인 반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7.9%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0.6%포인트 감소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취업자 중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59.8%였고, 여자(56.8%)보다 남자(61.5%)가 불안함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부채의 변화 면에서 가구소득이 증가(16.6%)했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감소(26.1%)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50대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수입'(37.1%), '안정성'(28.4%), '적성·흥미'(16.6%)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7664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김하균기자 kssh@metroseoul.co.kr

'월세 난민'도 양산할 건가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고공행진을 잇는 전세가와 마찬가지로 월세 역시 서민 입장에선 비싸긴 매한가지다. 게다가 전세대출과 달리 금융권의 월세대출 상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 월세대출 상품을 다루는 곳은 시중은행들이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보증기금 등을 통한 공적 주택금융 지원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

월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모두 서민층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최근 전세난과 부동산 매매 침체 등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나는 건 결국 서민층이다.

시중은행들의 월세대출 상품은 대출 대상자를 종전 신용 1~7등급에서 8등급으로 낮추는 등 대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인 데다 일부 은행은 월세대출 금리를 일반 대출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도 있어 아픈 대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월세대출에 대해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나 전세 상승분을 월세로 받는 '반전세' 확대로 세입자의 월세대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에서 기존 세입자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정부의 정책적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안 처리 서두르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최재천 민주당 간사, 이군현 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는 등에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설담당 행정관이 채동욱 정보조회 왜?

靑, 불법열람 확인 직위해제

청와대는 4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토록 해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직위 해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날부로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조 행정관은 부이사관급으로 고위공직자 사정 업무와는 무관한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다.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청와대의 채 전 총장 찍어내기가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송민준기자 ss.kim@

카펫 먼지 못 빨아들이는 로봇청소기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로봇청소기 절반 이상이 성능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로봇청소기 7개 제품의 성능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카펫의 먼지 제거 시험에서 모든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마룻바닥의 먼지 제거 성능에서는 룸바 780(아이로봇), 아이클레보 아르떼(유진로봇), 뽀로 K5(마미로봇), 클링클린(모뉴엘) 등 4개 제품이 기준치(80% 이상)를 넘지 못했다.

자율 이동 성능 테스트에서는 THEON(메가솔루션), 뽀로 K5(마미로봇), 클링클린, 아이클레보 아르떼 등 4개 제품이 30분간의 자율 이동 성능 기준인 90%에 미치지 못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7개 제품 모두 미흡했던 카펫 청소 먼지 제거 성능에 관한 적합한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제조사는 청소 로봇 제품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한편 제품 표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k@

뉴스&뉴스

류길재 통일 "장성택 실각했지만 신변엔 이상 없어"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하지만 그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신변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다. 정상적으로 있다는 뜻"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 극우 사이트·블로그 글 등 트윗으로 퍼날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국가정보원이 극우 성향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이용자 모임에 올라온 글을 자동 전송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 대량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뉴스매체, 트위터 '당'(같은 성향의 이용자 모임), 블로그 등을 '트위터 피드'와 '트윗 덱'이라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대선이나 정치 관련 글을 퍼뜨렸다.

"와! 유치원 합격… 로또 당첨보다 기뻐요"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에서 열린 2014학년도 신입생 추첨식에서 한 학부모가 당첨 쪽지를 쥐어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 신입생 절반 '안경잡이'

해사 수석 차석 모두 여성

육·해·공군사관학교가 4일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175명(남자 159명, 여자 16명)이 합격한 공군사관학교 제66기 신입생의 경쟁률은 36.8대 1(남 33.2대 1, 여 72.1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는 올해부터 나안 시력 0.5 미만의 지원자들도 시력교정수술 적합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종 분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체검사 불합격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11%로 낮아졌다.

나안 시력 0.5 미만의 안경을 쓴 신입 사관생도도 82명(47%)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재학 중 시력교정수술을 받으면 일관과 동시에 비행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신입생 최종 합격자는 310명(남 280명, 여 30명)으로 2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해군사관학교는 160명(남 144명, 여 16명) 합격자(경쟁률은 30.4대 1) 중 수석과 차석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조현정기자

문화재 6752건 특별점검

숭례문 부실복구·석굴암 균열 논란에 내년 4월까지 보존관리 체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 전반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종합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재질의 취약성이나 노후도, 훼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조물 문화재(주로 건축물)가 중심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 3900건 중 중요 건조물 문화재 1447건과 시·도 지정 문화재 7793건 중 5305건을 합친 총 6752건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4일 "이번 점검을 통해 사후 보수 정비 중심의 정책 관점에서 탈피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에 의한 사전·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2014년 2월까지, 시·도 지정 문화재는 2014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굴암이나 해인사 대장경판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핵심 문화재는 별도 중점 관리하고 동산문화재 중에서도 안전시설이 열악한 사찰 문중 서원 등지의 유물 다량 보관처 47개소도 이번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외부 전문가 100명 참여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점검 과정이나 결과의 전문성 공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100명 규모의 '중요문화재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박 대통령 중강현실 체험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창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윤은경 한울네오텍 대표에게 증강현실 동화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빛 3호기도 고장…원전 총 7기 '스톱'

4일 오전 발전기 이상으로 가동정지된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 3호기.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 한빛 3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한빛 3호기가 4일 오전 8시45분께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됐다고 발표했다. 여름 냉방 전력난에 이어 올겨울 난방 전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현재 한빛 3호기는 터빈 발전기만 멈춘 채 원자로는 정지되지 않아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여름 원전 대거 정지로 블랙아웃 위기를 겪은 데 이어 올겨울에도 전력난이 닥치게 됐다. 한빛 3호기의 가동 정지로 현재 전국 원전 23기 중 7기나 멈춰 섰기 때문이다. 정지된 원전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케이블 교체 작업 중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 4호기, 지난달 28일 고장으로 정지된 고리 1호기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3호기가 고장난 부분은 원자로와 별개이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험성적서 비리로 수리 중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정비 기간이 지연되면서 한빛 3호기 고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은혜기자 unique@

강서구 복지공무원 현장행정 사례집 발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4일 복지공무원 11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20년 이상 복지 현장에서 근무한 강서구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역 복지를 수행하면서 체험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개인적인 견해로 정리했다.

총 321쪽으로 1000부를 발간했으며 중앙부처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천재 모차르트 요절

1791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의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궁중 부악기였던 그의 아버지는 5세 때 이미 소곡을 작곡하여 비범한 재능을 보인 모차르트를 유럽 연주여행에 나섰는데 파리에서 슈베르트를 런던에서 바흐를 알게 돼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오페라와 교향곡 협주곡과 실내악 종교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으나 잦은 여행에 따른 건강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다 진혼곡 '레퀴엠'을 작곡하던 중 미완성으로 남긴 채 숨졌다.

숭실사이버대 18개 학과 신·편입생 모집

숭실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일부터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숭실사이버대는 재학 중 전 강좌, 졸업 후 전공과목 평생 무료 수강 시스템이며 100% 온라인 수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퇴근 시간 강의 수강으로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모집 학과는 신설된 노인복지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해 6개 학부(글로벌어문학부, 상담심리교육학부, 사회서비스학부, 벤처경영학부, IT디지인학부, 도시인프라공학부) 18개 학과다.

문의 02)828-5501

복지부와 'e-그린우편' 협약

서울지방우정청과 보건복지부가 3일 포스트타워에서 'e-그린우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 복지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北 영재 뽑아 해커 키운다

초등학교 때 미리 선발해 중·러 보내 특별훈련…현재 3000여 명 보유

북한이 전국의 수학 과학 영재를 선발해 초등학교 때부터 해커로 양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의 스티븐 김 교수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탈북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발된 초등학생들은 먼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러시아나 중국으로 건너가 특별 훈련을 받은 뒤 작전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교육 덕분에 현재 북한은 3000여 명의 전문 해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0년대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통해 500명의 해커로 구성된 사이버 부대를 창설했다. 이후 엘리트 학생 해커들을 집중 육성해 부대의 몸집을 불렸다.

김 교수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대외적인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미기자 soonmi@metroseoul.co.kr

바이든, 中 시진핑 주석과 회동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중한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언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AFP 연합

인간줄기세포→폐세포 분화

미 연구팀 사상 첫 성공

폐 손상 환자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미국 연구팀이 인간의 줄기세포를 폐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최초로 성공한 덕분이다.

메디컬뉴스투데이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센터 줄기세포연구소의 한스윌렘 스네크 박사가 인간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iPS) 두 가지 모두를 여러 종류의 폐세포와 기도세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네크 박사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같은 폐질환 치료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폐질환의 모델을 만들어 치료제의 효과를 실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이식에 필요한 폐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네크 박사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만이 아니라 iPS로도 똑같은 성과를 거뒀다. iPS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피부세포에 4가지 유전자를 주입,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만능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킨 것이다.

스네크 박사는 "공여자로부터 얻은 폐를 골격만 남기고 모든 폐세포를 제거한 뒤 여기에다 환자 자신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만든 폐세포를 심으면 거부 반응 우려 없이 새로운 폐를 만들어 이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기자 seoyu

4일 일본 국회에서 '비밀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여당 의원들에게 정숙을 요구하며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대고 있다. /AFP 연합뉴스

日 애니 거장도 "비밀보호법 반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법안반대 호소문 발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72·사진) 감독이 일본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대열에 뛰어들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야자키 감독을 포함한 일본 영화감독과 배우 269명은 전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영화인 모임'을 결성했다.

영화인들은 팬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알 권리를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신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야자키 감독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은 자유로운 국가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노벨상 수상자 등 일본 학자들이 결성한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학자 모임'은 3일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에 2000여 명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3D프린터 총기 규제법 美하원, 10년 연장 합의

미국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탐지 불가 무기 규제법'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초당적으로 이뤄졌다. 민주·공화 양당은 법안을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일정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차례 연장됐으며 선셋(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효력이 중단된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4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85.80	506.26	3.03	1061.00
(-22.56)	(-1.83)	(-0.01)	(변동없음)

캐디·간병인 대리운전자도 근로장려금 혜택

2015년부터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다.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사업자 일부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내년도 소득부터는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가구일 경우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이거나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부동산 등 재산은 1주택 이하여야 하며 금액은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인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채윤정기자

뉴스&뉴스

스타벅스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 4일 서울 중구 무교동 어린이재단 앞에서 그린 산타 옷을 입은 어린이들과 스타벅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소외계층 어린이 후원을 위한 산타 바리스타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카드 희망퇴직 실시

● 신한카드가 4일부터 사흘간 임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100~15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정규직 직원은 총 2800여명으로, KB국민카드보다 2배 이상 많고 특히 부서장급인 부부장과 부장 전체 직원의 14%를 차지해 인사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신한카드는 조직의 중복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합치는 조직개편도 올해 안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개인도 '사모펀드 투자' 활짝

● 개인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이달 중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모펀드 재투자가 허용되면서 소액 개인투자자가 재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 요건이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뀌고 펀드 설립도 등록에서 보고로 바뀌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김현정기자

비트코인 열풍 속 '팽' 당한 금

추락하는 금값 앞날은

4년전 대비 40% 빠져…"내년도 하락" 전망 우세
美 출구전략 언급에도 가상화폐 인기에 '역풍'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금값은 4년 전에 비해 40% 넘게 빠졌고 국제 금값도 올들어 벌써 27% 하락했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의 자금 축소 방안을 이달 중으로 결정할 것이란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종전 같으면 달러 강세 전망이 나오면서 금값이 오르는 투자 환경을 조성했겠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다. 시장 변화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스마트 머니들이 안전자산으로 금이 아닌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금 펀드의 수익률은 테마형 펀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금 펀드 10개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30.09%를 기록했다. 테마형 펀드 38개 중 가장 저조한 성과다.

금값은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금 시세는 전날 3.75g당 16만6000원으로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9월 22일에 3.75g당 28만4000원의 시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1.03% 내린 수준이다.

국제 금값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온스당 1600~1700달러 선이던 금값은 연초 대비 27% 하락하며 현재 12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에 금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금값의 '안전자산'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고 '금빛'을 잃을 우려가 높아졌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내년 금값이 15% 이상 하락하며 1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철광석, 구리, 콩 등 원자재 가격도 내년에 일제히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워런 버핏과 누리엘 루비니는 온스당 각각 800달러, 1000달러 이하까지도 예상한다.

아직 금 실물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금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를 기반으로 금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투기수요는 실수요가 괜찮다는 것이 확인되면 되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hjlund@metroseoul.co.kr

외관 보유액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경신 한국은행은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3450억10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종전 사상 최고인 10월 말보다 17억3000만 달러 늘어난 액수다. /연합뉴스

퇴직연금 올핸 더 어이없는 수익률

저금리 기조에 올 들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사의 상품은 원금을 까먹을 우려까지 제기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확정급여형(DB형) 원리금 보장 상품 기준으로 2.7~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5% 안팎의 수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하락한 수준이다.

직장인의 한 달치 월급이 매년 적립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처럼 떨어지면 1000만원 적립을 가정할 때 지난해 50만원이 넘던 수익이 올 들어 3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 된다. DB형 비원리금 보장 상품 중 HMC투자증권(-0.32%) 등 일부 실적연동형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융회계관계자는 "금융사의 높은 수익률 제시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가입자를 일단 늘려놓으려는 금융사의 속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2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3조	651458
		3조	230169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632870
4등	100만원	각조	61377
5등	2만원	각조	746
6등	2000원	각조	16, 67
7등	1000원	각조	8, 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대표이사 발행인	남궁호
사진 편집인	김승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0-2800
독자센터	02)721-9885

2005년 5월 31일 정간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296

건설·조선·해운 내년 기상도 '흐림'

업종별 경기 양극화 심화

내년에는 업종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건설·조선·해운업종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4일 '2014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실적을 제외한 여러 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경제심리지수가 아직 기준치인 100을 회복하지 못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는 산업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양호한 지표를 보이겠지만 업종별 온도차가 크고 업종내 기업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반도체, 자동차, 의료정밀기기, 철도장비 등은 호황 또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들 업종은 이익 증가로 유입된 현금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위주로 재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공급, 건설, 조선, 해운, 건설기계 등 장기간 불황을 겪은 업종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며 "성장보다 생존에 초점을 맞춘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 유통, 전기장비, 비금속 광물, 항운, 의류 등의 업종은 경기가 둔화하거나 불황에 진입해 현금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이 점차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완 산업경제팀장은 "내년에 경기가 다소 회복한다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도 성장 지향에서 내실 위주로 경제 운용 전략이 수정될 것"이라며 "기업들도 과도한 저인에 기댄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가벼운 메쉬 운동화 찢어질 가능성 높아

메쉬 소재 운동화가 유연성이 좋고 가볍지만 내구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최근 인기를 끄는 메쉬 소재 9개 운동화 브랜드의 제품 18종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메쉬는 그물식로 매듭을 지은 원단으로 통풍이 잘되고 유연성이 뛰어나 조깅용으로 많이 쓰인다.

조사 결과 18개 제품 중 11종이 마모 내구성이 취약했다. 내구성이 낮으면 신발 겉창과 갑피(발등을 덮는 부분)가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에는 리복(제품명 서브라이트 듀오) 르카프(알파러고) 나이키(에어맥스+2013)가 올랐다.

이예영 소비자정비기획실장은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이 메쉬 원단 운동화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면서 "운동화 내구성 등에 대한 품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희기자

'미친 전세'도 못 잡는 폭락공포

자산 불려주던 집, 저성장 시대의 '찬밥'…실수요자라면 구입 고려를

저성장된 '위기의 한국인'

[글 싣는순서]
1. 문제점회 …내년이 안 보인다
2. 굳었던 해외에서 잇따라 발목
3. 견실 구하기 국회에 달렸다
4.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5. 건설사 스스로 변해야 산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저금리·저변동성 등 이른바 '3저(低)'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3%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자산 가치의 하락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유독 이 같은 사회적 변화를 부인하는 여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들이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건설시장의 안정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주택 구매의 전제 '실거주' 인 시대 도래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70%를 위협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전세난을 견디지 못해 집을 살 법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3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54건으로 전분기(2만4517건)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미친 전세'라는 과격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세 시장이 악화됐음에도 수요자들이 전셋집만 찾는 이유는 비싼 집값으로 인해 가계의 구매 여력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또는 "집값이 내릴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어 주택 구매를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 여부만 놓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는 만큼 거래의 전제가 '투자'가 아닌 '실수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투기꾼' 아닌 임대사업자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임대 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오피스텔·원룸 등에서나 형성됐던 월세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등의 주택으로 옮겨오고 있다.

문제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책임져야 할 임대 시장을 민간에서 떠맡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민간 임대를 제공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꾼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단순히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저성장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면서 임대 시장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요자들의 주택에 대한 시선이 소유에서 이용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다"며 "폭등론·폭락론 등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 목적에 맞게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거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시장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헤라클레스 도자기'…자동차 들고도 '멀쩡' 한국도자기는 …

"아시아나 안전 개혁할 것" 야마무라 보안실장 포부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실장으로 임명된 일본 ANA 출신의 야마무라 아키요시(65) 부사장이 아시아나의 안전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마무라 부사장은 4일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 교육훈련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NA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석기자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LOVESTORY in DECEMBER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이웃 간의 사랑나눔,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인 디셈버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아름다운 클래식과 오페라 명곡 등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선율로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감동이 가득한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교환권이 있는 분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 12.11(수)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주최 metro
주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
하나은행
한국투자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KB투자증권

이통 가입자 과반이 'LTE족'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50%를 돌파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LTE 가입자는 최소 2735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약 5440만 명의 절반을 웃돌았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유무선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이통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2658만9242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437만1134명의 약 49%를 차지했다. 아직 공식 집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LTE 가입자가 매달 70만~9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LTE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달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국내 LTE가 도입된 것은 2011년 7월 1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LTE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올 4월 2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 수도 LTE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LTE가 빠른 데이터 속도와 고화질 멀티미디어 이용 가능 효과를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ye040@

'대학생이 뽑은 CEO' 1위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최고경영자(CEO)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좋은일연구소는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주목한 CEO를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집단 부문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0.6%로 1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6.1%),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5.8%), 구본무 LG그룹 회장(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Issue & View
영원한 1등 없는 IT업계

포털 1세대격 엠파스·심마니 이미 사라진 역사
'독점논란' 네이버도 구글 위력 앞 '흔들리는 꽃'

/정은혜기자 ueseuye@metroseoul.co.kr

열흘 붉은 꽃은 없다(花無十日紅).

최근 싸이월드의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IT업계는 연말을 앞두고 더욱 씁쓸한 분위기다. '올 것이 왔다'란 인식도 있지만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수익을 내지 못해 불미스럽게 쫓겨난다는 사실에 뒤숭숭하다. 싸이월드는 '영원한 1등은 없다'란 명제를 강조한 셈이다.

IT업계는 바람 잘 날 없다. 포털의 역사를 짚어보면 1990년 중반 우리나라 초기 포털 시장은 야후를 중심으로 한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등 해외 검색 엔진의 독무대였다. 야후와 라이코스가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TV 광고는 매번 큰 화제를 모았다. 국내 포털 다음·엠파스·심마니·한미르의 점유율은 미미했다. 그러던 중 다음이 한메일과 카페 기능으로 1990년대 후반 시장을 주도해 간다. 해외 포털과 달리 국내 사용자들에게 특화된 콘텐츠가 장점이었다. e메일 계정을 무료로 넉넉하게 제공하는 한메일과 가상의 모임공간 카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카페 때문에 다음을 쓴다'는 이용자가 많을 정도다.

네이버는 1999년 출범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다 2002년 가을 '지식iN'이란 문답형 서비스로 대세를 뒤집는다. 신변잡기부터 전문 지식까지 네티즌끼리 해결하는 형식에 신규 가입자가 봇물을 이룬다. 다음의 악재도 네이버의 호재로 작용했다. 다음의 스팸메일 규제 정책은 정상 e메일의 송수신 장애를 불러 네이버 e메일로 이용자가 대거 이탈했다. 2004년 다음은 네이버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2006년 국내 포털 시장 점유율 60%를 돌파한 네이버는 2007년 70%를 넘어선 이래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형님들'을 추격하는 데 성공한 '아우' 네이버는 시장 점유율 78%까지 기록하는 빛과 함께 '각을 논란' 그림자도 남겼다.

현재 네이버는 구글을 경계한다. 구글의 국내 포털 점유율은 4%대에 그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글로벌 지도 검색 등은 내수 시장 위주의 네이버가 따라갈 수 없는 분야다. 익명의 네이버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 검색과 보유 데이터베이스 규모는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라면서 "한계 1위 타이틀에 언제까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다시 한번 붉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IT업계 관전이 더욱 흥미롭다.

"한국 애니메이션 사러 왔어요" 4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유럽 공중파 방송사 초청 한·유럽 TV 콘텐츠 수출상담회에서 애니지점제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해 제작 중인 국장을 갖은 애니메이션 코드 네임 어둠의 룰 프랑스 유럽 스튜디오 카날 측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4구 새 아파트 향후 2년 품귀 전망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이 내년과 내후년 큰 폭으로 감소한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와 맞물려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서울 강남 4구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9367가구다. 올해 27개 단지, 1만2128가구와 비교해 22.7%가 줄어든 물량이다. 강남권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만2000여 가구씩 입주 물량이 유지됐으나 내년에 이어 2015년에도 41.9%가구로 급감할 예정이다.

이처럼 강남권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이 지역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재건축 기준 연한 강화 등의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신규 공급 자체가 급었다. /박선옥기자 pso8320@

가양 지식산업센터 '자이타워' 공급

GS건설이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서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 '강서한강 자이타워'를 공급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 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신해 부상하는 틈새 상품이다.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대제한 규제 폐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후 지식산업센터의 개별 사무실을 임대로 내놓는 것이 가능해졌다.

강서한강 자이타워는 최첨단 가업도시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와 인접한 데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 더블 역세권에 있다. 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이용이 수월하고 공항과도 가까워 국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분양가는 주변보다 저렴한 3.3㎡당 600만원대로 책정됐다.

문의 (02)3665-0500 /박선옥기자

BC카드 "토이저러스 할인"

BC카드가 겨울철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구성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적인 완구 체인점인 토이저러스 매장을 이용하는 BC카드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BC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들에게는 토이저러스 5000원 할인권, 롯데상품권 5000원권이 제공된다.

집단지성의 힘 알려준 나의 경영지침서

CEO 추천 '내 인생의 책' 안병익 씨온 대표 '위키노믹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쥐어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댄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기업 씨온의 안병익(사진) 대표는 돈 탭스콧, 앤서니 윌리엄스의 '위키노믹스'(21세기북스)를 통해 씨온 서비스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위키노믹스란 인터넷 우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대중들의 지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협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경제·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설명한다. 저자가 말하는 위키노믹스의 핵심은 함께 머리를 맞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업과 집단지성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골드코프의 금광 개발 사례. 캐나다 토론토의 금광회사 골드코프는 1999년 금광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50년간 모아놓은 광산 지질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 57만5000달러의 상금을 내건 금맥 후보지 발굴 콘테스트를 열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이 콘테스트를 통해 110곳의 금맥 후보지를 제안받았고 이 중 80% 이상에서 금맥이 발견, 연 매출 1억 달러에 불과했던 골드코프는 9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광산업체로 성장했다.

안 대표는 "씨온, 돌직구, 식신핫플레이스 등 출시한 위치기반 SNS 서비스가 이런 집단지성과 협업을 기반으로 탄생했다"면서 "이용자들은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정보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용자 신뢰도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위키노믹스에서 돈 탭스콧이 강조한 것처럼 수평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사내 27명의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의하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지난 5월 출시한 돌직구처럼 참신한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회의 중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탄생한 돌직구는 회식이다 연인 데이트 장소 등이 필요할 때 간단한 조건을 등록하면 인근 매장 점주들이 실시간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치할 수 있는 앱이다. 이미 출시 7개월 만에 45만 다운로드를 넘어섰고, 참여 매장도 8000여 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안 대표는 "위키노믹스는 내게 연구원에서 경영자로의 도전을 위한 지침서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통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키노믹스 시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안병익 대표는 "위키노믹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키노믹스 시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진영기자 son@

화제의 책

먹는다→경험한다… 과일 가치의 재발견

과일 CEO 조형선/지식공간

과일을 파는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성공담을 담은 책이다. 사실 CEO의 성공담은 너무 흔하다. 그런데 이 책은 기존 창업자의 성공담을 다룬 다른 책과는 조금 다르다.

무엇보다 과일이라는 아주 흔한 아이템으로 승부해 성공했다는 점이다. 즉 누구나 일상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찾을 수 있고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라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성공하는 회사를 보면 대개는 한 가지 이유로 축약된다. 결국 가치의 재발견이다. 저자 역시 과일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했다. '과일을 먹는다'에서 '과일을 경험한다'는 콘셉트로 접근했다.

제철 과일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비슷한 시기에 물량이 몰린다. 이는 곧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라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이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성장촉진제를 쓴다.

문제는 촉진제가 들어간 과일은 맛이 고만고만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과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농가와 함께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따서 고급스러운 포장, 과일별 효능을 적은 메모 등을 곁들여 고가에 판매한 것이다.

촉진제를 많은 마트 과일만 먹던 도시의 소비자들이 리얼 과수원 물건을 접하면서 소비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의 케이크에 들어가는 딸기, 샐러드를 아우른 제철과일 도시락 등은 과일 수요의 영역을 새로 개척한 사례다.

/박성훈기자 zen@

대륙의 현실·리코노믹스 실체 까발린다

중국경제 다시 읽어라-시진핑 시대 10년을 말한다 김외현/팬덤북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중국은 막강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미국과 함께 세계 2강으로서 역할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군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매년 10%가 넘는 고속 성장의 신화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하이무역관 관장으로 일하는 저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난무하는 중국에 대한 현실을 중국 시장 최일선에서 짚어준다. 나아가 중국의 미래 10년을 규정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의 실체를 경제 전망과 관련해 설명해준다.

값싼 노동력 메리트가 사라진 중국은 기술 혁신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2015년까지 주요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75%가 정부에 속한 중국 기업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리코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의 간소화와 시장질서 확립, 시장 경제로의 개방 가속화도 전개될 예정이다.

저자는 이 같은 엄청난 변화 탓에 오늘날 중국은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에 시달리고 경제 성장 또한 주춤거리고 있지만 시진핑 정권은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장기적 국가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우리 기업들도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경제 해설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저자의 식견을 통해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옮긴 돌이 어느 곳에 놓일지 미리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직장인을 위한 신간

이케아 세대 그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전영수/중앙북스

기득권층이 계획한 표준 라이프스타일 취업→연애→결혼→출산→양육을 포기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2030세대의 피폐한 현실과 고단한 미래를 살펴본다. 스웨덴 조립식 가구 '이케아(IKEA)'의 저렴한 가격, 빼어난 디자인, 약한 내구성 등 단기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특성은 낮은 몸값에 뛰어난 능력, 그러나 고용 불안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30대의 삶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확률을 높이는 확률 니시우치 히로무/비전코리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점심 메뉴부터 진학, 취업, 결혼 등 매순간이 선택이며 이 작은 선택이 모여 삶을 이룬다.

이 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공률 높은 확률에 대해서 말한다. 불안과 후회가 없는 최선의 선택은 확률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일상에 감춰져 있는 확률, 게임과 도박에서 지지 않는 뒤까지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확률적 사고 함양을 제시한다.

주목 이 한 줄

논어, 직장인의 미래를 논하다 최종엽/미래의창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작은 돌부리나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곤 하는 것이니 작은 근심 걱정에 원대한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다.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은 이미 어려움이 아니다"-28쪽

최근 직장인 사이에 고전 읽기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인류의 멘토인 공자의 지혜가 녹아있는 '논어'는 필독서로 거론되지만 쉽게 도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삼성전자 인사부 출신으로 시간경영연구소를 운영하는 저자는 30~40대 직장인들이 논어의 매력에 쉽게 빠져들 수 있도록 핵심 어구 30개를 뽑아 직장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풀어냈다.

자기 브랜드 확립의 필요성, 인생의 커리어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다양한 사례에 녹여 직장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30·40 직장인에게 공자의 가르침을 전한다. '배움의 습관이 내 일을 바꾸고 기다려지는 미래를 만든다'며 직장인들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배움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국명기자

애플 '얼굴인식' 특허 등록

아이폰6 탑재 기정사실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6가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할 것이란 소문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IT 전문매체 씨넷은 애플이 '얼굴 감지 및 인식을 통한 개인용 컴퓨터 기기 제어'라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8년 3월 출원한 이 특허를 이용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인식시키지 않고 스마트폰에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 잠금을 해제하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얼굴 특징, 피부 구조, 형태, 외부 상태, 눈·코 간격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등록된 이용자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특히 애플은 특허출원 문건에서 이 기능을 컴퓨터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굴 인식으로 PC의 화면보호기를 해제하고 e메일도 얼굴 인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앞서 가디언 등은 애플이 3차원(3D) 영상인식센서를 만드는 이스라엘 회사 프라임센스를 3억6000만 달러(약 3815억원)에 인수한 점을 거론하며 차세대 아이폰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선보일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아프리카TV-구글 손잡다

국내외 대표 동영상서비스 브랜드, 글로벌 공략위해 유통 제휴

동영상 서비스를 대표하는 토종-해외 브랜드가 손을 잡았다.

국내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아프리카TV는 4일 구글의 유튜브와 동영상 콘텐츠 유통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브랜드는 그간 서비스 분야가 겹치는 대표적인 경쟁 관계였지만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전격적으로 서로의 우군이 됐다.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콘텐츠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다루는 라이벌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아프리카TV는 자체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게임,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급하며 이를 전 세계에 유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TV는 콘텐츠 제작자인 BJ(Broadcasting Jockey)들이 방송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동영상 생성 및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특히 광고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유튜브의 정책에 맞춰 BJ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울 예정이다.

구글은 유튜브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대도서관', '양띵'과 같은 인기 BJ의 게임 방송은 고정 구독회원이 70만 명에 달하며 동영상 누적 조회수는 1억 건이 넘는다.

스포츠나 음악 장르에서 활동하는 BJ도 늘고 있어 유튜브의 존재감도 덩달아 키울 수 있다. 트래픽이나 회원 수 증가는 물론 광고주 증가로 추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아프리카TV SNS플랫폼사업본부 안준수 이사는 "유튜브와의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유통 채널을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본격적인 해외 서비스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개인 창작자의 전문적인 활동과 글로벌 진출, 수익화 등 건강한 창작자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네이버 지식인 "대입상담 받아요"

네이버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상담 행사를 연다.

네이버는 지식인을 통해 복잡한 대학별 전형, 본인 점수대에 맞는 대학 문의 등 대학 입시 관련 수험생 고민을 나누는 이벤트를 24일까지 진행한다.

네이버 지식인은 메가스터디, 이투스교육, 대성마이맥, 종로학원 등 전문 지식 파트너들과 함께 전문적인 입시 상담을 벌인다.

이번 지식인 이벤트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할 전망이다.

또 대입 질문을 올린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CGV 영화 예매권 2매(50명)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술희기자 unieue@

SKT 스마트폰 방수코팅' 무료서비스 SK텔레콤은 무료 생활방수 코팅 서비스 대상 기기를 삼성전자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2'·'갤럭시 라운드'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방수 코팅 서비스는 일상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침수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사지점 명동점과 이화진 강남점, 게코드라이(Geckodry) 역삼본점 등 3곳에서 실시한다. /SK텔레콤 제공

SK플래닛 '런처플래닛' 서비스카드 눈길

SK플래닛은 스마트폰 초기 화면 꾸미기 서비스인 '런처플래닛'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런처(Launcher)는 스마트폰 초기 화면을 이용자 입맛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출시된 런처플래닛은 국내 최초로 초기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페이스북, 네이트 판 이슈와 날씨, 전화, 문자메시지 등 즐겨 찾는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카드'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서비스카드란 수많은 앱들 중 자주 이용하는 핵심 기능만을 대기화면에 게재한 뒤 단순한 화면 넘김을 통해 빠른 실행이 가능하게 한 기능으로, 심플하고 다이내믹한 모션 사용자환경(UI)을 제공한다.

런처플래닛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0.2 이상이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T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 가능하다. 테마 변경은 원하는 아이템을 내려받아 적용하면 된다. /서기선기자 [illegible]

캐논 내년 1월 25일까지 '아낌없이 주는…' 행사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내년 1월 25일까지 캐논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캐논의 아낌없이 주는 하얀 거울' 을 진행한다.

기간 내 구매한 제품을 내년 2월 1일까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홈페이지(www.canon-ci.co.kr)에서 정품 등록 후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세계 최소형 DSLR 카메라인 EOS 100D(화이트 색상 포함) 또는 EOS 700D 중 한 가지 제품을 구매하고 정품 등록을 마친 고객에게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푸마 구스다운 또는 캐논 정품 배터리 중 하나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어기에 캐논은 EOS 100D 화이트를 정품 등록한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선착순 1만 명에게 톰프렌먼 스트랩을 추가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수출 킬러콘텐츠' 게임…'게임 킬러'된 정부

규제할 때는 중독물질 수출할 때는 킬러 콘텐츠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관련업과 단체 운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부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4일 지적했다.

[illegible]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부 문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4쪽에는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 장르 간 융합을 도모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무색케 하는 게임 규제책을 내는 것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특정 시간에 한해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곶감 덕장 추억 따먹으러 출발~

7~8일 논산 양촌면 곶감축제…체험행사 풍성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곶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촌체육공원에서 '감빛 물든 그리움, 정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이란 주제로 '2013 양촌곶감축제'가 열린다. 명품 곶감과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는 양촌으로 떠나보자.

◆자연과 정성이 깃든 명품 곶감

이맘때가 되면 양촌에는 익어가는 곶감 내음이 가득하다. 사실 햇빛촌이라 불리는 양촌은 이름만큼 햇살이 따사로워 햇빛에 감을 말려 곶감을 만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양촌은 북서풍이 강해 통풍이 잘되고 산으로 둘러싸인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연이 주는 곶감인 것이다. 또 양촌의 감나무들은 양촌을 지켜온 고목들이다. 곶감의 당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이런 자연환경과 함께 양촌 주민들은 정정하디 있는 감 덕장에서 곶감을 만드는 데 온 정성을 쏟는다. 미고난 자연환경과 사람의 정성에 깎쳐져 명품 곶감이 탄생하는 것이다.

◆곶감왕축 감 회빈 별미 가득

축제는 우선 달고 촌득한 명품 곶감의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함께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곶감 팔죽이 준비되고 감으로 만든 감와인과 감식초의 맛으로 좋을 돈을 수 있다. 또 곶감을 이용한 곶감씨 보또, 감 쉽게 깎기, 감 깎기, 감 따기 체험 등 곶감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물론 명품 곶감의 맛도 실컷 즐길 수 있다.

또 곶감홍보관과 전시관에서는 곶감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미을 작목반에서 정성 들여 말리는 곶감과 곶감이 익어가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여기에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된 딸기 공취, 서리태 등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점도 함께 운영된다.

◆송어잡고 양촌 막걸리 시음

축제에서는 또 쉽게 미처막 추억을 장식할 선물도 전해준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손으로 송어를 잡는 송어 잡기체험은 잠시나마 추위를 잊고 동심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잡은 송어는 축제장 곳곳에서 화롯불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 또 화롯불에 메추리도 구워 먹을 수 있어 곶감과 함께 관광객에게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양촌 지역 특산품으로도 유명한 양촌 막걸리 시음회에서 파시는 막걸리 한 잔은 축제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잔 정과 따뜻함을 더해준다. 축제가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돌아볼 달콤한 향수를 전해주는 것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12월 7~8일(토~일요일)
- 장소: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촌체육공원
- 문의: 양촌곶감축제추진위원회 041)746-8795

6층 높이 은진미륵·겨울 대둔산… 볼 것 많은 논산

겨울의 길목,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훈훈함이 감도는 논산을 만나보자.

◆자비로움을 더해주는 미륵불상

논산에서 제일 먼저 가봐야 하는 곳은 논산 1경으로도 유명한 관촉사다. 젖무덤같이 소담하게 부푼 반야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관촉사는 논산 시민들에게도 산책 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 특히 관촉사가 품은 가장 빼어난 보물은 단연 은진미륵이다. 18m의 석조불상인 은진미륵은 우리나라 최대의 석불로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안녕과 행복을 염원하기에 충분하다.

◆잔잔한 호수가 선물한 비경

논산시 한가운데 자리한 탑정호는 겨울에도 햇살의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열어준다. '산은 강을 품고 강은 들을 품고 살지만 호수는 산과 강과 들을 품고 산다'는 말처럼 탑정호는 쌍였던 근심까지 걸어줄 수 있을 만큼 넓고 길다. 더욱이 신풍리 쪽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은 잊을 수 없는 비경을 선물한다.

◆겨울 산수화를 만나다

계곡과 단풍으로 유명한 대둔산. 하지만 겨울이 돼야 대둔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기암괴석이 빼어나 눈이 내린 후 연출되는 설경이 작은 금강산이라고도 불리는 대둔산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산 후에 유식으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어 산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다.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동두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 날짜: 8일~내년 1월 5일
- 장소: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KT 사거리 일원

축제는 우선 430m 거리를 크리스마스트리 거리로 조성하며 6개의 테마로 나눈 전시를 준비한다. 특히 10m의 메인 트리를 중심으로 인근의 중앙공원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해 축제를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특별 무대를 설치해 다양한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소요산 등산, 통일전망대 방문, 전통 오일장 체험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대한민국 김치 문화축제

- 날짜: 5~8일
- 장소: 경복궁 일원

축제는 김치와 김장 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과 온정이 있는 우리 김장 문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며 전국 8개 권역에서 각각 선정된 최우수 브랜드 김치도 만나볼 수 있다.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 날짜: 7~8일
- 장소: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원

축제에서는 철새축제 미션을 찾아라, 철새 골든벨, 야생동물 보호 사진 전시, 찾아가는 이동 조류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20여 종이 넘는 공예 체험과 농경문화 체험 등도 준비된다. 게다가 200인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철새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조류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탐조 어베도 경험할 수 있다.

구로베협곡 설국열차 타고 과거여행

이시카와·도야마·니가타 日 힐링 코스'를 거닐다

일본으로 힐링 여행은 어떨까. 방사능 문제로 최근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여행지를 찾아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말 그대로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다. 이에 이시카와에서 시작해 도야마를 거쳐 니가타현으로 여행을 떠났다.

유노구니노모리의 히가시차야 찻집 거리(왼쪽)와 도야마현의 구로베협곡 기차, 이마요즈카시 양조장의 사케(오른쪽)는 니가타현의 물 맛과 쌀 맛이 빚어낸 걸물이다

◆ 역사를 품다 이시카와현

13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일본 지기지방의 옛 민가를 그대로 옮겨 지은 유노구니노모리는 이시카와현이 자랑하는 전통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속촌 같은 곳이다. 단순히 보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도자기, 칠기, 일본 전통 종이 등 약 50여 종에 달하는 전통 공예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하쿠산 3대 사찰 중 하나인 자생림이 나타데라는 넓은 경내에는 기암이 모여있는 바위굴과 영석 등이 있으며 가람이 기묘하게 안치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공미가 잘 조화돼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일본 여행을 하고 싶다면 히가시 찻집거리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찻집 곳곳에는 유명한 게이샤들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아직도 게이샤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 정원의 아름다움 도야마현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은 170년이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입구에서부터 에도 시대 고풍스러운 모습이 담겨졌다. 겐로쿠엔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도야마현 남쪽 산간 오지에 위치한 고카야마 합장촌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으로 '합장 양식 촌락'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않게 하기위해 억새를 두텁게 엮어서 경사를 급하게 만든 지붕이 이색적이다. 도야마현을 찾았다면 꼭 들러야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구로베협곡이다. 구로베협곡은 우나즈키역에서 게야키다이라역까지 41개 터널과 21개 철다리를 지나는 왕복 3시간의 산악기차 여행의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게야키다이라역에서는 산새과 함께 족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 '멋과 맛' 니가타현

니가타현은 멋과 맛이 있는 곳이다. 니가타현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사시기미네고원이다. 한 시간 남짓 둘러봤지만 300년 넘은 단풍나무와 종·바위 숲 속의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사사기미네고원 관리자는 "원숭이와 사슴, 노루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가끔 곰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쌀과 사케로 유명한 니가타에서는 다양한 사케도 맛볼 수 있다. 눈으로 연해 수질이 독특하고 쌀 맛이 좋으니 사케 맛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방문한 이마요즈카시 양조장은 가업으로 이어왔다. 매년 그해 생산한 쌀을 가지고 10월 초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케를 만든다. 올해에는 1.8ℓ짜리 3만 병 정도를 만들 예정인데 모두 판매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안상훈기자 ysw@metroseoul.co.kr

'오프라인 맛집 메뉴' 택배주문해 즐긴다

빕스 훈제연어·원할머니 탕 등 가공상품 출시… 온라인 유통채널서 인기

맛집 찾아 다니던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달 내놓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과 2012년 가계소비 부문 중 외식 및 배달음식 지출 비율은 감소한 반면 조리 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소비액은 증가했다.

장기간 불황에 저렴하고 간편한 집밥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와 오프라인 맛집의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프라인 맛집 메뉴를 가공식품으로 생산해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CJ오쇼핑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CJ오클락은 8일까지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VIPS)의 대표 상품 훈제연어 가공식품을 단독 판매한다.

한 팩 180g에 정가 대비 30% 저렴한 6980원 가격으로 판매해 3000여 개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11번가에서는 '원할머니 즉석탕 시리즈' 4종을 판매하고 있다. 원할머니는 보쌈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브랜드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 수요에 맞춰 육개장, 설렁탕, 소갈비탕, 우거지갈비탕으로 구성된 가공 상품을 내놨다. 최대 26% 할인에 쿠폰 적용 시 2900~3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11번가의 가공식품 카테고리 인기 상품 1위에 등극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티켓몬스터도 8일까지 서울 송파구 맛집으로 유명한 삼광호수갈비의 돼지갈비 메뉴를 티몬 특별가에 단독 판매한다. 삼광호수 갈비 1kg을 2만5000원에 제공하고 세트로 구입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전효성 속옷화보 "잘 빠졌죠?"

걸그룹 시크릿 전효성이 귀엽고 섹시한 크리스마스 란제리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4일 공개된 좋은사람들 '예스'의 속옷 화보에서 전효성은 볼륨감 넘치는 반전 몸매를 뽐냈다. 예스는 '스위트 크리스마스'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화보에서 20대 소녀의 순수하면서도 발랄한 분위기를 담은 속옷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좋은사람들 제공

스킨 부스터로 '숙취 피부' 깨우세요

연말 술자리후 '그루밍 팁'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12월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연말에는 남자들의 피부도 손상되기 쉽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분비되는데, 이때 나온 부신피질 호르몬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랩시리즈가 연말연시 술자리 흔적을 피부에 남기지 않으려면 평소보다 꼼꼼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루밍 팁을 공개했다.

기본은 세안이다. 술을 마시는 동안 확장된 모공 사이로 노폐물이 쌓이고 음주 후에는 피지 분비량이 평소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 먼저 따뜻한 물로 막힌 모공을 열어준 후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세안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세안 후에는 보습 스킨을 발라 남아있는 노폐물을 닦아내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음주로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회복하고 부족한 수면으로 칙칙해진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애프터 케어도 필요하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쿨링 효과가 있는 스킨 부스터로 성난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심어준다. 보습 단계 마지막에 2~3방울을 덜어 얼굴 전체에 가볍게 두드려 바르면 된다.

또한 요즘처럼 바람이 차고 건조한 날씨에 술을 자주 마시면 피부 수분량이 떨어져 주름이 생기기 쉽다. 이땐 아침저녁으로 고보습 크림을 바르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박지원기자

아동용 부츠 수요 급증

최근 겨울철 가족 단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동 부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스프리스는 지난해보다 아동 부츠의 디자인 수를 1.5배 늘리고, 물량도 2배 확보했으나 문의가 예상치를 넘어서 긴급 추가 생산에 들어갔다.

어른들에 비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부츠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회사 측은 풀이했다.

스프리스 관계자는 "성인용 제품과 패밀리룩 연출이 가능해 가족 단위의 구매 고객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홈파티족 "반갑다! 강강술래 송년세트"

40% 할인판매 인기… 15일까지 연장

계속되는 불황으로 연말 모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가족 및 지인과의 조촐한 소모임은 늘어난 반면 30명 이상 대규모 단체 송년회는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 직영 매장의 예약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가족 단위 모임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명 이상 대규모 단체 모임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연말 모임의 경우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이들이 늘어난 반면 동창회, 향우회, 관공서 등도 규모를 축소해 부담을 줄이거나 신년회와 함께 치르려는 곳들이 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떠들썩한 송년회 대신 실속 있게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매장 인기 메뉴를 집에서도 똑같이 즐길 수 있는 포장상품 매출도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강술래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45-9292)을 통해 지난달 넷째 주에 40% 할인 판매한 송년세트가 500세트나 팔리며 큰 인기를 얻자 해당 행사를 이달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김상국 강강술래 사장은 "올해 송년회는 대선을 치렀던 지난해보다 전체 예약건수가 30% 늘었지만 대규모 모임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며 "달라진 송년회 분위기에 맞춰 할인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단체 고객 유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CJ올리브영 8일까지 세일

● 드러그스토어 CJ올리브영은 개점 14주년을 맞이 8일까지 '빅세일'을 벌여 화장품과 헤어 보디 제품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NYX와 BRTC 등의 브랜드를 50%까지 할인하고 로레알과 메이블린 등은 40%, 버츠비와 클리오 등을 30% 저렴하게 내놓는다.

강태선 회장 1억 동국대 기부

●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은 4일 동국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경영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강 회장은 2011년에도 동국대에 발전기금 11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9월 블랙야크 강태선 나눔재단을 공식 출범한 블랙야크는 산악인 유족 지원, 녹색환경 조성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코오롱 '1995 재킷' 재출시

● 코오롱스포츠는 1995년 선을 보인 '1995 스칸디나비안 재킷'을 새로 단장해 재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스키용 패딩 재킷으로 나온 원조 디자인을 응용해 외피와 내피를 분리해 입는 스타일로 내놨다. 외피에는 면 소재에 방수 기능을 더했으며, 내피에는 거위털을 충전재로 써 보온성을 높였다. /박지원기자

'면역세포 창고' 관리해야 무병장수

'장' 건강 돕는 습관·기능식품 챙기세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고 퇴근 후 운동을 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이는 건강할 때 체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질병은 면역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찾아온다는 점을 볼 때, 이 최고의 건강 비결의 핵심은 '면역력 향상'에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인체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는 장(腸)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면역력을 좌우하는 장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장 속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면역력이 개선돼 병 없이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장은 소화기이기 때문에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자극성이 강한 향신료와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변비를 막고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루 4~5잔의 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챙겨 먹도록 한다. 식사는 육류 위주의 식단과 과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으로 나눠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에 좋다.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것을 피하고, 하루 30분 정도의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하면 소화를 도와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 3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 관련 질병 발생 여부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현대인들의 바쁜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장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미 장 건강과 밀접한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알로에'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2년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전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중 홍삼, 비타민·무기질에 이어 알로에가 5%로 3위, 프로바이오틱스가 4%로 4위를 차지해 장 건강을 돕는 알로에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식이섬유 제품의 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1%,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28% 차이로 크게 증가했다.

알로에 겔의 면역력 증진 효능은 알로에 겔 부분의 '다당체'가 맡고 있어, 알로에 제품 선택 시 알로에의 양보다는 다당체 함유량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속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를 일컫는 말로 유익한 균을 증식시키며 장내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균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에 출시된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선택 시 구매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항은 이중 코팅 여부와 다양한 유산균의 배합이다. 유익한 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산에 약해 위를 통과하면서 거의 죽기 때문에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중 코팅이 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장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질인 식이섬유는 배설물의 부피와 수분량을 증가시켜 원활한 배변활동을 도와 깨끗하고 건강한 장을 만든다. 식이섬유는 중금속도 배출시키며 장기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LG생명과학 리튠 관계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비타민과 오메가3만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도 함께 찾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칩·후룻볼·팩…과일의 변신

인스턴트로 즐기는 법 다양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비타민 등 과일의 영양이 필요하지만 바쁜 일상과 추워진 날씨 때문에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때는 싱싱한 과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

풀무원 계열의 친환경식품 전문기업 올가홀푸드는 국산 친환경 생과일을 동결 건조해 만든 '올가 사과칩' '올가 배칩' '올가 딸기칩'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올가 친환경 과일칩'은 생과일을 튀기거나 굽지 않고 영하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급속 동결 건조시켰기 때문에 과일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다.

혼자 사는 싱글족이라면 과일을 사다놓고 한두번 챙겨 먹은 뒤 상해서 버리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때는 보관성이 뛰어나고 1인분씩 포장된 가공 과일을 구매해 보자.

청과 브랜드 돌(Dole)코리아는 100% 과일 주스에 과일을 담은 '후룻볼(Fruit Bowls) 파인애플'과 '후룻볼 트로피칼'·'후룻볼 복숭아'를 선보이고 있다. 과일을 시럽이 아닌 과일 주스에 담아 타 과일 식품과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며, 1회에 소비가 가능한 113g(4온스)의 간편한 플라스틱 용기로 출시돼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다. 학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 시 간식거리로도 제격이다.

과일 손질이 귀찮은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배달되는 '과일 도시락'을 추천한다.

온라인 과일도시락 배달 전문 '스낵박스'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잘 손질된 과일을 박어 담아 배달해주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성운기자

겨울 하우스 딸기 벌써 나왔다 홈플러스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39개 점포에서 산청·진주·논산 등 대한민국 유명 산지 하우스 딸기를 한 팩에 8000원(1kg), 삼성·현대카드 결제 시 5500원에 판매한다. 딸기는 기온이 낮은 겨울에 과육이 단단해지고 당도가 높아져 겨울철 인기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 전형욱 홈플러스 과일팀 바이어는 "이제는 1년 사계절 내내 딸기를 즐길 수 있지만 겨울철 하우스 딸기는 당도가 높아 고객들이 많이 찾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겨울 딸기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제공

메리케이 '드림 도서관' 25호

메리케이가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통영신애원에 '핑크 드림 도서관' 25호점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도서관은 통영신애원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부모, 지역 아동과 주민들이 이용하게 된다. 일러스트레이터 '박잠'은 재능기부를 통해 도서관 벽화를 그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동아오츠카 페북 경품행사

동아오츠카는 22일까지 세상의 모든 기념일을 축하해! 와 GS25 바나 더 만증샷 등 소이조이 페이스북 정은 이벤트를 연다.

소이조이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oyjoy.kr)을 통해 진행되며 이벤트 내용에 따라 댓글을 작성해 응모하면 1등 당첨자(2명)에게는 리조트 스위트룸 숙박권, 2등(40명)과 3등(50명)에게는 영화예매권과 1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각각 제공된다.

13일 '아사히 사운드 파티'

아사히가 오는 13일 밤 10시부터 서울 옥타곤 클럽에서 '아사히 수퍼 사운드 2013' 파티를 연다. 2009년 시작된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2만 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올해 파티 테마는 플래티넘이다.

아사히만의 독특하고 '예민력한 플래티넘' 이미지가 시청각적으로 연출되며 최고의 일렉트로닉 아티스트 라인업이 환상의 사운드를 펼칠 예정이다.

오메가3 함유한 영양수액 '위너프' 세계진출

환자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오메가3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개념의 영양수액이 출시됐다.

JW중외제약은 오메가3 성분이 함유된 3세대 영양수액 '위너프(WINUF)'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너프는 '포도당' '지질' '아미노산' 등 3가지 영양소를 간편하게 혼합해 사용하는 3챔버 제품으로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했다. 또 위너프는 오메가3와 승리자(Winner)를 상징하는 'W'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는 '이너프(enough)'의 합성어로 오메가3를 함유한 새로운 3챔버 영양수액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JW중외제약은 지난 7월 세계 최대 수액회사인 미국 박스터사와 라이선스 아웃 및 수출계약을 체결해 세계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해 2014년까지 위너프를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30대 아줌마팬' 많은 무뚝뚝 정우

 # 팬층

정우는 1990년대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서울 상경기를 그린 '응사'를 통해 10대부터 50대 전 연령층에 걸쳐 폭넓게 사랑받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30대 여성들로부터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초 대학을 다녔던 30대 여성들이 캐릭터에 가장 큰 몰입도를 보이고 있다.

 # 매력

정우는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경상도 남자 스타일로 여성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자극한다. 나정(고아라)에게 "팍 이쁘게 안 하면 때려 주이쁜다"고 말하는 등 우악하게 굴다가도 따뜻한 눈빛으로 나정이 스치듯 던진 말을 잊지 않고 다정하게 챙긴다.

최근엔 나정의 고백에 낯간지러운 말 대신 남자답게 키스하는 것으로 여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 외모

정우는 사실 잘생긴 외모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얼굴이라 부드러운 캐릭터부터 거친 캐릭터까지 다양한 연기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녀 충무로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180cm 큰 키와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도 장점이다.

 # 패션

정우는 극중에서 쓰레기란 별명처럼 패션과는 거리가 멀다. 투플근한 트레이닝복, 심플한 티와 청바지 등 평범한 패션이 전부다.

그러나 몸매가 워낙 좋아 막 걸쳐도 '옷발'이 사는 체형이다.

 # 반전

정우는 털털한 극중 모습과 달리 여러 매력의 소유자기도 하다. 최근 화보를 통해 우수에 찬 신사 같은 모습부터 누아르 영화의 주인공 같은 거친 모습, 로맨틱한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대세' 정우·김우빈 집중분석

전국의 여성들은 요즘 두 남자 재문에 주은 올거울이 즐겁다.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와 SBS '상속자들'에 각각 출연 중인 정우(32)와 김우빈(24)을 보기 위해 빔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리나케 TV 앞으로 달려가기 일쑤다. 이들이 '쓰레기 앓이'와 '영도 앓이'에 푹 빠지자 외로워진 남자들의 애꿎은 하소연이 늘 정도다. 원빈 같은 조각미남이 아닌데도 여심을 녹이며 최근 대세 배우로 떠오른 정우와 김우빈을 정밀 분석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 팬층

KBS2 '학교 2013'에 이어 현재 방영 중인 '상속자들'에서 반항아 고등학생을 연기 중인 김우빈은 유독 10~20대 여성 팬층이 많다. 청소년관람불가인데도 개봉 3주 만에 26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 '친구2'의 흥행에는 김우빈을 보러 온 여성과 20대 관객 동원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 매력

극중 정우가 어른 같은 묵직한 사랑을 보여준다면 김우빈은 조금 스러운 '상남자' 스타일이다.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은상(박신혜)에게 툴툴거리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고 거침없이 고백한다. "너 오늘부터 내거야" "그렇게 (눈) 뜨지 마, 떨려" "싫어도 참아. 만 싫으면 더 좋고" 등 돌직구 대사는 얼도 어록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외모

김우빈은 그 나이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을 가졌다. 굵은 얼굴선에 진한 눈썹과 찢어진 눈매는 강한 남성미를 느끼게 해 반항적이고 거친 캐릭터에 누구보다 잘 어울린다는 평이다. 특히 모델 출신답게 187cm의 균형 잡힌 몸매가 돋보인다.

 # 패션

모델 출신이라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김우빈은 연기 못지않게 패션으로도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상속자들'에서 댄디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주는 이른바 '영도 스타일'을 선보인다. 방송이 될 때마다 그가 입는 재킷 등 의상들이 완판되며 새로운 스타일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 반전

외모가 강렬한 느낌인 데다 주로 반항아 캐릭터를 맡아 거친 성격의 소유자일 것 같지만, 실은 애교 많고 발랄하고 여린 성격이다.

친구들에게 수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유난히 눈물도 많다. 평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그는 중학교 때는 전교 5등까지 했던 모범생이었다고 한다.

1020 여심 꽉 잡은 상남자 김우빈

star bag

결혼 후 첫 TV 동반출연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첫 TV 동반 출연에 나선다.

4일 EBS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6일 오후 8시50분 방영될 '하나뿐인 지구'에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은 허례허식만 남은 '인스턴트 식' 한국의 결혼 문화를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으로, 최근 녹화에서 이효리 부부가 9월 올린 간소한 결혼식을 소개했다.

김예림과 듀엣 '비누' 발표

가수 **이승환**이 내년 11번째 정규 앨범 발매에 앞서 10일 선보일 디지털 싱글 '비누'에서 김예림과 듀엣으로 나섰다.

4일 소속사에 따르면 이 곡은 폭풍 같은 사랑이 지나간 후의 현실을 그린 재치 섞인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발라드곡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승환이 지난여름 방송된 SBS '슈퍼매치'에 출연해 나른하고 묘한 음색의 김예림을 눈여겨보고 듀엣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와 재계약 '의리남'

배우 **김수현**과 **김아중**이 현 소속사와 재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간다.

1일 소속사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김수현은 재계약을 체결했다. 키이스트의 양근환 대표는 "김수현이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해 더 큰 무대를 누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나무엑터스도 "김아중이 최근 전속계약을 다시 한 번 체결했다"고 알렸다.

'어게인 1997' 타이틀곡 공개

걸그룹 **티아라**가 새 미니앨범 '어게인 1977'의 타이틀곡을 공개했다.

이들은 4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앨범 타이틀곡 '나 어떡해'와 수록곡 '1977 기억안나'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나 어떡해'는 1977년 발표된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으로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와 복국곰이 2013년도 버전으로 새롭게 멜로디를 입히고 편곡했다.

윤아 "망가지는 역할 딱 좋아"

9일 첫방송 '총리와 나'서 20세차 이범수와 로맨스

KBS가 올해 마지막 월화극 '총리와 나'를 통해 따스한 웃음을 선사한다.

9일 첫 방송될 이 드라마는 고집불통의 대쪽 총리 권율(이범수)과 그와 결혼하고 싶어 안달 난 20대 여자 남다정(윤아)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담은 작품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강인호(윤시윤)·서혜주(채정안)·박준기(류진)의 복잡한 스토리로 전개된다.

4일 장충동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자인 이소연 PD는 "이번 캐스팅은 신기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배우들이 캐스팅됐다"면서 "주연배우 5명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배우들이지만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전부 반전미와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시대 멤버이기도 한 윤아는 데뷔 후 가장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그는 "캐릭터가 엉뚱한 점이 많고 망가지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까지 해온 연기 중 가장 엉뚱스러운 캐릭터를 맡았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무 살 차이가 나는 윤아와 이범수는 키스신에 도전한다. 이범수는 "아직 키스신은 촬영하지 않았다. 키스는 담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윤아는 밝고 활달하며 존중하고 싶은 배우다. 그렇다 보니 작품에 대해 풍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근기자 ppa@metroseoul.co.kr

'총리와 나' 사랑해주세요 4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KBS2 새 월화극 '총리와 나' 제작발표회에서 주연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시윤, 윤아, 이범수, 채정안, 류진. /연합뉴스

솔로로 더 잘나가는 지드래곤

'쿠데타' 日 1주일 판매량 10만장… 그룹 빅뱅 '얼라이브' 첫주 기록 넘어

지드래곤(사진)이 소속 그룹인 빅뱅의 기록을 넘어서며 일본에서 인기 독주를 벌이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7일 솔로 데뷔 앨범 '쿠데타'를 현지에서 발표해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2위에 올랐다. 발매 당일 3만4597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데 이어 1주일 동안 10만 장이 넘게 팔렸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발표한 빅뱅의 일본 정규 앨범 '빅뱅 2'와 지난해 발표한 '얼라이브'의 첫 주 판매량을 모두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밝혔다.

앨범에는 지드래곤이 9월 초 발표한 정규 2집 '쿠데타'의 수록곡을 포함해 지난해 출시된 미니앨범 '원 오브 어 카인드', 2009년 데뷔 앨범 '하트브레이커'의 수록곡을 담고 있다. '삐딱하게', '니가 뭔데', '블랙'은 일본어로 새롭게 실렸다.

지드래곤은 일본 솔로 데뷔 앨범 발매를 기념해 3일 오사카 제프 남바에서 팬 이벤트를 개최했다. 16~17일에는 제프 도쿄에서 또 한 번 팬들과 만난다.

그는 빅뱅의 멤버로 일본 6대 돔 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7~8일에는 후쿠오카 야후오크! 돔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o@

'19금' 넘는 '25금' 섹시 나인뮤지스 오늘 선뵌다

보컬돌 나인뮤지스(사진)가 "25금" 고감도 섹시 콘셉트로 겨울을 녹인다.

4일 디지털 싱글 '글루'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이들은 공식 트위터에 단체 이미지를 공개했다. 9명의 멤버는 각자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하며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섹시한 매력을 발산했다. 타이트한 블랙 시스루 스타일링에 전문 모델다운 생동감 넘치는 포즈를 더해 우월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스윗튠이 작곡한 '글루'는 보코더 사운드가 돋보이는 디스코 리듬의 곡이다. 그루브한 기타와 디스코 드럼의 조화가 어우러진 복고풍의 노래다.

나인뮤지스는 25세 이상의 성인들을 겨냥한 뇌쇄적인 이미지로 다른 여성 그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5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컴백 무대를 연다.

/유순호기자

다이나믹듀오 공연 클럽파티

온라인 음악 사이트 멜론이 13일 클럽 옥타곤에서 클럽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클럽파티에는 2013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톱 10을 수상한 다이나믹듀오(사진)와 6일 새 싱글을 발매하는 버벌진트, '어반자카파'로 활동 중인 래퍼 산이가 출연하고 DJ DOC의 이하늘이 디제잉을 맡는다.

12일까지 멜론 이벤트 페이지에서 멜론 CF를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공유하면 참여 가능하다.

멜론사업부 어제욱 본부장은 "그동안 1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해왔는데 이번 파티를 시작으로 20대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성근기자

“이런 환대는 처음이야”

첫 내한 아만다 사이프리드 '싸이팬 – 한국인 친구 많아'

첫 내한한 할리우드 톱스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4일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끌레드뽀보떼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어제 한국땅 당시 공항에서 환대해준 팬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을 정도"라고 내한 소감을 밝혔다.

또 "미국에 한국인 친구가 제 많다"면서 "한 친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찜질방을 소개해 때밀이를 체험했다. 한 달에 1~2회 가는데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라며 "찜질방 문화 덕분인지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보다 열 살 정도 어려 보이는 것 같다"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친구의 아이들이 '강남스타일'을 듣고 춤추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그때부터 나도 싸이의 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싸이는 이제 한국 가수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가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4일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내한 기념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사이프리드는 끌레드뽀보떼의 초청을 받아 3박4일 일정으로 남자 친구인 배우 저스틴 롱과 함께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방한에서 기자회견과 화보 촬영, 자선 파티, 방송 출연, 팬사인회, 매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한편 열한 살 때부터 모델로 활동해온 그는 영화 '맘마미아'와 '레미제라블'을 통해 '할리우드 흥행퀸'으로 입지를 굳혔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레미제라블'이 신드롬이 일 정도로 크게 흥행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은희기자 ...@metroseoul.co.kr

김용만 KBS 출연 정지

불법도박 혐의 탓 – 이수근·탁재훈 등 공판 주목

KBS가 상습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김용만(사진)의 출연을 정지했다.

KBS 관계자는 4일 "10월 열린 KBS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용만의 KBS 출연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만이 형법 제246조 도박·상습도박에 관한 죄를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김용만은 지난달 24일부터 KBS에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으며, MBC도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출연제한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연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도박 혐의로 공판을 앞둔 이수근·탁재훈 등 동도 KBS 방송 출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용만은 2008년부터 2~3곳의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영국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승패를 두고 총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베팅해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유세준기자 yun@

손석희 앵커 들국화 노래 '뉴스9' 엔딩곡 택했다

JTBC '뉴스 9'(사진)의 손석희 앵커가 컴백을 앞둔 들국화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손 앵커는 매일 뉴스를 마무리하는 코멘트와 함께 그날의 주제와 맞는 엔딩곡을 직접 선곡하고 있으며 3일 방송에서는 들국화가 부른 '에즈 티어즈 고 바이'를 택했다. 이 곡은 6일 발매 예정인 곡으로, 손 앵커는 신보 음원을 미리 전달 뒤 아직 발매가 되지 않았음에도 뉴스 엔딩곡으로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 사용된 '에즈 티어즈 고 바이'는 들국화가 공연에서 선보인 적이 있는 곡으로, 롤링스톤스가 부른 원곡 못지않은 서정성과 쓸쓸함을 전한다. 이 곡은 들국화의 새 앨범에서 CD1의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된다.

들국화는 3일 신곡 '걷고 걷고'를 음원 사이트에 선공개 했고, 6일은 오프라인에 2장의 CD로 구성된 새 앨범 전체를 공개한다. /김숙희기자

대중문화계에 부는 '김광석 신드롬'

그의 음악 조명 줄이어

올겨울 대중문화계에 고 김광석(사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0년대 대학가 풍경과 당시 문화를 소개하며 큰 인기를 모으는 tvN '응답하라 1994'는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동시에 열렸던 김광석 콘서트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방송으로 전파를 탄 김광석의 노래는 당시 사고의 참담함과 교차되며 애잔함을 더했다.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주인공 오현수(엄지원)의 테마곡은 김광석의 음악이다. 남몰래 짝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은 싱글 여성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28일에는 JTBC '히든싱어'가 고 김광석 편을 끝으로 시즌 2를 마무리한다. 제작진은 "듣는 음악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전 세대 추억의 아이콘으로 남은 김광석을 제외할 수 없었다"며 "시즌 1부터 김광석 편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하게 방법을 모색했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TV에서 부는 김광석 열풍은 공연계에서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16일 개막하는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는 국내 뮤지컬 최초로 김광석의 가창곡, 자작곡, 미발표곡을 만날 수 있는 뮤지컬이다.

1990년대 초반 하숙집과 대학교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20년을 넘어 현대를 이야기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아우르는 김광석의 음악이 어떻게 극에 녹아들지 기대를 모은다.

이처럼 김광석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해 폭넓은 세대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특유의 애틋한 감성과 가사 때문이다.

'디셈버'의 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국내 뮤지션 중 음악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이는 몇 없다. 그중 김광석은 다양한 세대를 대변하는 가사와 멜로디로 시대를 뛰어넘는 음악적 가치를 품고 있는 뮤지션"이라고 밝혔다. /김숙희기자 sune@

'이중계약 논란' 조여정 봄엔터와 전속계약 불가

계약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배우 조여정(사진)이 결국 봄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조여정의 전속계약기간 만료 전 이적을 위한 사전 접촉 및 이중계약에 대해 전속계약 체결 불가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4일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 해지 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돼 아들의 전속계약 체결 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여정은 16일까지 디딤531과 계약돼지만 지난 8월 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해 이중계약 시비에 휘말렸다. 연매협은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배우가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여정은 소속사 없이 활동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상벌위는 연매협 부회장이자 봄엔터테인먼트 대표인 ㄲ씨가 협회 발족 때부터 현재까지 협회와 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김상호기자

날씨

12/5 木 일출시각 07:31 일몰시각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지역	기온
서울	3/8
청주	2/9
대전	1/11
전주	1/12
광주	1/13
제주	1/15
강릉	7/12
울릉도	3/7
대구	2/14
포항	5/14
울산	3/15
부산	5/15

혈압이 불안한가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심뇌혈관 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한국기상산업진흥원 (www.polk.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7			2	1		4	
1	6	5				9		
	2	8	6				9	
			3	9				
	4	9	5				1	
9	5	6				8		
	8			3	6		5	
								4

	8		4		3		2	
5			2		9			3
		6				4		
7	1			8			5	9
			7		1			
8	3			9			7	4
		3				9		
2			5		6			1
	6		9		7		3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개빌러 마다어 리미티드 저음)

겨울 무는 보약이다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늦가을 무가 나올 때면 의원이 문 닫는다. 옛날 의사들은 초겨울 무 수확철이 되면 걱정이 태산 같았다. 환자가 줄어 개점휴업을 걱정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제철에 나오는 무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인데 겨울 무가 몸에 이롭기는 이로운 모양이다. 2세기 중국 후한 때 사람 장형(張衡)이 「남도부」에 봄철 겨잣, 여름 죽순, 가을 부추와 함께 겨울 무는 아예 보약이라고 적었다. 사계절을 대표하는 몸에 좋은 음식으로 겨울 무를 꼽았던 것이다. 장형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 때 장영실과 비슷한 인물로 천문기구인 혼천의 등을 만든 과학자지만 의학에도 밝았다.

실제 중국의 「본초강목」을 비롯해 우리 「동의보감」에도 무의 장점이 적혀있는데 특히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아 음식의 소화를 돕는 데다 가래를 멈추게 하며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준다고 나온다.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무를 인삼에 버금가는 채소라는 뜻에서 토인삼(土人蔘)이라 고까지 불렀다.

다섯 가지 이로운 채소라는 뜻에서 오미채(五美菜)라는 별명도 있다. 날것으로 먹어도 좋고 김치를 담가도 좋으며 뿌리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무를 먹으면 염증이 치료되는 데다 삶아 먹으면 잃었던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를 즐겨 먹은 왕도 있었으니 바로 정조 임금이었다. 「국조보감」에는 정조 스스로 "어렸을 때는 밥을 적게 먹는 대신 아침저녁으로 무를 많이 먹었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왕세손이 밥 대신 무를 먹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내의원들 역시 무가 보약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요즘 김장이 막바지로 무가 한창 맛있을 때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올해 가기전에 인연 만날까요 미루지 말고 내년엔 결혼해야

동작이삼자 여자 73년 1월 6일 음력 오후 5시30분
남자 73년 7월 3일 음력

Q 전에 선생님께서 2013년에 인연을 만나고 2014년에 결혼운이 있다고 상담해주셨었다.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위 남성과 인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고난이 따른다지만 천을귀인(天乙貴人) 귀인의 도움을 받는 길성이 조화돼 있어 당사자들끼리는 상부상조하게 된다. 그러다 어쨌거나 헤어진다면 인연의 끈은 미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궁합을 보는 목적입니다. 올해가 최적기인데 인연이 없었다 해도 혼자 살 생각은 접고 2014년에는 결혼해야 합니다. 부족한 반쪽끼리 만나 원만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 노력 없이 결혼 생활이 이뤄지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경제적 여건이 맞지 않더라도 결혼을 약속한다면 결혼 날짜를 길게 잡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위해 어떤 기술 필요할지 사회복지·어학 무조건 배워야

조규대 여자 71년 11월 25일 음력 오전 7시

Q 결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혼자 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 서비스업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술을 배워야 노후가 안정될까요? 현재 경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야 할까요?

A 관성(남편, 남자)인 금(金)의 뿌리가 없는 고란살(孤鸞煞, 과부살)에 남편궁이 절지(絶地)로 단절돼 있으므로 재혼하기 힘듭니다. 겨울에 태어나 외롭고 금슬지락(琴瑟之樂)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2014년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때 결혼하지 못하면 40대 후반에 결혼운이 약하게 들어옵니다. 역마살로 인해 한곳에 안주하기 어려우니 사회복지나 어학을 공부해보십시오. 계획 기술도 도움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먼저 써먹을 수 있을지 의심한다면 시작도 어렵게 됩니다.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이성을 대할 때 의심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5일 음 11월 3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멀리서 반가운 귀인이 온다. 60년생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72년생 눈을 뒤어줄 벗이 있어 든든하다. 84년생 여유 있을 때 재충전하라.

소 49년생 운동도 무리하면 독. 61년생 자식에게 헌신한 보람 느낀다. 73년생 들뜬 마음부터 안정시켜라. 85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오는 하루.

호랑이 50년생 오랫동안 준비한 일은 빛을 본다. 62년생 일이 근질근질해도 자중할 것. 74년생 해는 지고 길 길은 멀어 바쁘다. 86년생 잦은 망설임에서 빨리 벗어나라.

토끼 51년생 유주운전 피하라. 63년생 각별한 후배가 깜짝 선물 안긴다. 75년생 공직자는 공사 구분해 신경 써라. 87년생 한춘미 여름다운 것은 끊임없는 도전 때문.

용 52년생 예상치 못한 고민 생긴다. 64년생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76년생 인연을 끊는 것이 때론 약이 된다. 88년생 느낌 오는 이성과 마주하게 된다.

뱀 53년생 세상이 구경할만 걸 뒷하지 마라. 65년생 모임에 가면 주인공이 된다. 77년생 애매한 일은 결정 미뤄라. 89년생 작은 일 한마디가 그대를 빛나게 한다.

말 42년생 막힌 일은 풀릴 기미 보인다. 54년생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66년생 의욕이 너무 앞서면 일생만 생긴다. 78년생 상사의 간섭에 곤혹스러운 하루.

양 43년생 기회이 달릴 땐 쉬어라. 55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67년생 혼자서 풀이 드는 일은 동업으로 해결하라. 79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게 된다.

원숭이 44년생 집에 작은 고민 생긴다. 56년생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 68년생 낙관했던 일은 변수 때문에 꼬인다. 80년생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잃지 마라.

닭 45년생 고집은 적당한 선에서 꺾는 게 좋다. 5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9년생 운기가 길하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81년생 욕심부리면 손해 본다.

개 46년생 외출하면 귀도 눈도 즐겁다. 58년생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지 마라. 70년생 바라는 일은 이뤄지나 고민도 생긴다. 82년생 어리다고 할 얕보지 마라.

돼지 47년생 평소보다 실리 선택할 것. 59년생 대세 따르면 모든 게 편안하다. 71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 있어 흐뭇. 83년생 오랫동안 꿈은 야망 결실 기회 찾아온다.

한국 포트3…'죽음의 조' 가능성

2014 월드컵 7일 조추첨 포트X 최대변수 떠올라

2014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방식과 포트 배정이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조추첨식을 사흘 앞둔 4일 브라질의 코스타도사우이페에서 4개의 각 포트에 배정된 국가를 발표했다.

1번 포트에는 개최국 브라질과 10월 17일 기준 FIFA 랭킹 상위 7개 팀(아르헨티나·콜롬비아·우루과이·스페인·독일·벨기에·스위스)이 배정됐다. 칠레와 에콰도르·코트디부아르·가나·알제리·나이지리아·카메룬 등 7개 국가는 2번 포트에 포함됐다.

한국은 예상대로 북중미, 아시아 팀들과 한 포트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멕시코·코스타리카·온두라스·일본·이란·호주가 3번 포트에 들어갔다. 4번 포트는 유럽 9팀만으로 꾸려졌다. 네덜란드·이탈리아·잉글랜드·포르투갈·그리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러시아·프랑스가 4번 포트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 조추첨에는 4개의 포트 이외에 '포트X'가 등장해 죽음의 조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추첨 행사에서 가장 먼저 포트4에 속한 9개 유럽 국가 중 한 팀을 뽑아 2번 포트로 배정하게 된다. 순위가 가장 낮은 프랑스가 포트2로 들어갈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FIFA는 포트X 국가를 확정짓지 않았다. 이탈리아·네덜란드·잉글랜드 등도 포트X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으로서는 브라질·네덜란드·이탈리아와 한 조가 되는 최악의 조편성을 만날 수도 있게 됐다. 반면 가장 바람직한 조합은 벨기에·알제리·그리스이다. 한국이 이들 3팀에 비해 파워와 기량에서 결코 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월드컵 조추첨은 7일 오전 1시 브라질의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린다.

/남상오기자 [illegible]

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월드컵 설명회에서 네덜란드의 클라렌스 세도르프, 브라질 축구선수 에르나니스, 전 브라질 국가대표 카푸(오른쪽부터)가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를 선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metro Brazil

월드컵공인구 '브라주카' 자긍심 뜻 브라질 속어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가 3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브라주카'라고 명명된 이 공은 작년 9월 인터넷 공모를 통해 받은 다양한 이름 중 '보사 노바'와 '카르나발레스카'를 제치고 77.8%의 득표율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브라주카의 제작을 의뢰받은 독일의 아디다스사는 공인구의 제작에 앞서 올 시월에 브라질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6월과 7월 10일 저녁 6시에 경기가 개최되는 12개 도시의 정해진 장소에서 응모 신청을 하면 된다.

이로써 브라주카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팬들에 의해 이름이 결정된 공인구로 기록됐다.

브라주카는 브라질에서 쓰이는 속어로, '브라질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2번 달고 뛰는 '한신맨' 오승환 '끝판대장' 오승환이 4일 오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등번호 22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써보고 있다. 오승환은 지난달 22일 한신 타이거스와 2년간 계약금 2억 엔, 연봉 3억 엔, 2년간 옵션 5000만 엔 등 최대 9억 엔(약 93억원)에 계약했다. /연합뉴스

상주 상무, 강원FC 4대 1 대파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초대 우승팀인 상주 상무가 강원FC를 완파했다.

상주는 4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13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홈경기에서 2골을 넣은 이상협 등의 활약에 힘입어 강원FC를 4-1로 크게 이겼다.

상주는 지난해 K리그에서 클럽 라이선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 강등돼 올 시즌을 2부리그에서 보냈다. 상주는 절치부심 끝에 K리그 챌린지 첫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데 이어 승격을 위한 첫 관문도 거뜬히 통과했다.

반면 강원은 K리그 클래식(1부)에서 강등 위기에 몰렸다가 시즌 최종전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극적으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날 패배로 1부리그 잔류에 적신호가 켜졌다.

두 팀은 7일 오후 2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을 펼친다. 두 경기의 합산 득실차로 승리팀이 결정되며, 동점일 경우 원정 다득점이 적용된다. /장윤희기자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4일

상주	4	1	강원

[illegible]

부상 박지성 곧 복귀할 듯

산소 탱크 박지성(32·PSV에인트호번·사진)이 복귀를 눈앞에 뒀다.

네덜란드 축구 전문매체인 사커뉴스는 4일 "박지성이 팀에 합류해 훈련했다"며 "13일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초르노모레츠(우크라이나)전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박지성은 9월 29일 AZ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 빅토르 일름에게 왼쪽 발목을 밟혀 교체됐다. /장윤희기자

농구선수 라이트 무단이탈

여자프로농구 하나외환의 외국인 선수 모니카 라이트(25·사진)가 무단으로 팀을 이탈했다.

라이트는 통역을 통해 구단 측에 한국을 떠난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미국으로 가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보통 이럴 경우 구단과 상의하지만 구단 측에는 일방적인 통보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모니카는 지난 2010년 미 여자농구(W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미네소타에 지명됐을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다. 키는 178cm로 비교적 단신이지만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순간적 돌파 능력은 최고로 꼽혔다. 올 시즌 하나외환에서 6경기에 나와 평균 13분42초를 뛰며 10.17점, 3.67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정성훈기자

양동근 올스타전투표 1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의 가드 양동근(32)이 2013-2014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2년만에 최고 인기 선수 타이틀을 되찾았다.

KBL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올스타 베스트 5 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양동근이 4만6885표를 얻어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투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2011-2012 시즌 이상민 서울 삼성 코치에게서 최다 득표 선수 자리를 물려받은 양동근은 지난 시즌 김선형(서울 SK)에게 자리를 양보했지만 2년만에 다시 최고 인기 선수가 됐다.

한편 올해 올스타전은 22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장성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4일

팀	1Q	2Q	3Q	4Q	합계
SK	20	14	25	21	80
오리온스	13	20	23	19	75
전자랜드	22	15	22	17	76
LG	18	13	11	20	62
하나외환	16	10	19	15	60
삼성생명	15	12	15	15	57

프로배구 전적 4일

GS칼텍스	3	0	인삼공사
우리카드	0	3	삼성화재